

극기승자(克己勝者)가 되는 길

극기생활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지 않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극기 생활인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죽음의 경지까지 가서 죽기 직전까지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또한 항상 희생으로 움직여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주고 덜 좋은 것을 내가 취하는 생활이 습관화될 때에 '나'라는 의식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하나님의 영은 강해져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버리고 좌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6천년 전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만 알아도 천당에 절반은 온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은 성경과 불경에 뚜렷히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더러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불경에도 사람이 원래 부처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부처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과 불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면 82면 6절)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성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었던 우리 인간의 조상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녔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 피가 지금의 후손까지 유전되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날아다녔던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인간 속에 누구나 다 들어있는 고로 구속을 받지 않고 날아다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항

상 행복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원래 우리의 조상이었던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모르는 낙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산 경험이 있는 피가 우리 후손에게도 남아 있는고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맨날 말로는 '죽어라지, 빨리 죽어라지'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외치는 예수교인들도 병이 들면 죽기 싫어서 복음병원 가고, 목사 불러서 빨리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죽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누리던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이었으므로 지금도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영원무궁토록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시 마귀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면 날아다니며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1350명을 구원할 수 있어

지금 인간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마귀 종노릇하고 있으므로 마귀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인 양심이 석방되면 성



메시아(Messiah, Messiah) 조희성님

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제단에 모인 사람들 속의 마귀만 죽으면 온 세상 마귀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알려 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와 같은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만 죽여 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집부리고 아는 척하고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존심 속에서 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만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도 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귀가 먼저 죽어야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도 따라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면 그 한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아 1350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1명이 생기면 2700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사람의 숫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1명 뿐일 때는 1350명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350명만 해도 완전히 재창조가 되

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모조리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숫자가 많이 나오면 구원을 얻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의인으로 이루어지면 또 그 옆의 사람이 하나씩 의인으로 이루어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만계단은 구세주가 되는 의인을 키우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모두 의인이 되면 세계는 금세 뒤집어져 죽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돈이나 어떤 물질로써 세계를 뒤집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음란마귀와 물질의 음란만 이기면 내리막길

이 사람이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이 음란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란을 이기고 나면 두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물질의 음란인 것입니다. 물질의 음란을 이기고 나면 그 나머지는 순서껏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것이므로 물질의 음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음란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천국 근방에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란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기가 음란죄를 짓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음란마귀를 이기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다. 이 음란마귀는 이기기 직전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는 데는 음란마귀를 이겨야 영이 한 차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음란마귀를 이겨야 2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부터는 쉬운 것입니다. 마치 산을 올라갈 때 정상까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인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기지 못하면 오르막길도 다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음란마귀를 이겨야 물질의 음란마귀와 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밀실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모두 타인에게 쥐 버렸던 것입니다. 주머니에 있던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다 털어주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 손으로 왔듯이 하늘나라에도 빈손이 아니라 갈 수 있지 될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을 때는 일전(一錢)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간자가 되어서도 삼사년 동안은 이 제단을 처음 세운 후 누가 500만원을 현금해도 이 사람은 그 돈을 몽땅 해외 이간자에게 갔다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간자가 되어서도 물질의 음란을 이기나 못이거나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6면에 계속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9장 사사시대》

2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단지파 기업



예급(이집트) 고센 땅에서 약 4백년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고 미디안(아라비아 반도)에 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 기원전 1400년경에 가나안(팔레스타인)으로 입성한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민족을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기업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 7지파에 속한 단지파가 추첨을 통한 결과 블레셋 민족이 거하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다. 그나마 블레셋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소라 땅과 에스다울 땅만이 단지파의 기업으로 차지하고 살 수 있었지만, 너무나 협소하여 10만 명이 넘는 단지파 백성들이 모두 들어와서 살 수 없었다.

단지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떠밀려 가서 난민과 같은 처지로 우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쯤되면 유다지파 쪽에서 단지파와 합세하여 블레셋 민족을 몰아내겠다는 제안이 나올만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여호수아를

앞세운 12지파의 협력으로 얻은 땅이라는 것을 돌아볼 때, 단지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단지파의 지도층에서는 유다지파 기업의 땅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단지파 백성들을 위해서 이주할 만한 새로운 터전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남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의 기업 땅에 단지파 백성들을 임시로 옮길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3개 지파씩 묶어서 성막의 동서남북에 4군영을 배치할 때 아셀 지파와 남달리 지파는 단지파의 지휘 아래에 성막 북쪽을 담당한 군영에 속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일명 북군이었던 아셀 지파와 남달리 지파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단지파처럼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속했고 그에 따른 추첨에 의한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나란히 차지한 것이다.

단지파의 지도층에서 수백 명의 장정을 무장한 병정으로 정비한 후 선발대로

가나안 북쪽에 보냈다. 아셀 지파와 남달리 지파는 추첨에 의한 기업의 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파는 스스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분주하고 여념이 없었다. 그래서 단지파 진영 소라에서 올라온 선발대는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아셀 지파와 남달리 지파에게 기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북쪽으로 더 올라갔다.

그들의 먼발치에 '백발의 산'이라고 불리는 헬몬산이 단지파의 선발대 일행에게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았다. 단지파의 장정들은 헬몬의 산이아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산이요 신령스런 산으로 여김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눈에 펼쳐진 라이스 성읍은 평온하였고 거기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풍부한 과일이 있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순박하고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다. 여호수아를 앞세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얼마나 많은 토착민을 죽였던가? 어린 아이를 뱀 여자과 남자를 아는 여

자는 장과 칼로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만 살려주는 일도 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단지파 백성들은 물리적 충돌 없이 라이스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라이스의 지명을 단지파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 성읍'이라고 명명하고 10만 여명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선지자 모세가 말한 대로 "단은 바산에서 뛰쳐나온 사사 새끼라고."라는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바산(골란고원)의 북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라이스 지명이 '사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단지파는 그들의 기업의 땅을 가나안 남쪽의 소라 성읍 주변과 가나안 북쪽의 라이스 성읍 주변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미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기로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기업을 차지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단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안젤라

